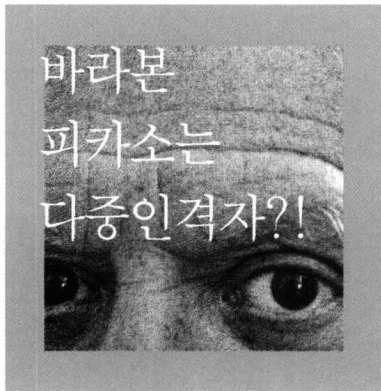


입체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

마리나 피카소 지음 | 백선희 옮김 | 효형출판 | 218쪽 | 값 8,500원

《피카소의 이발사》

모니카 체르닌·멜리사 윌러 지음 | 박정미 옮김 | 시공사 | 280쪽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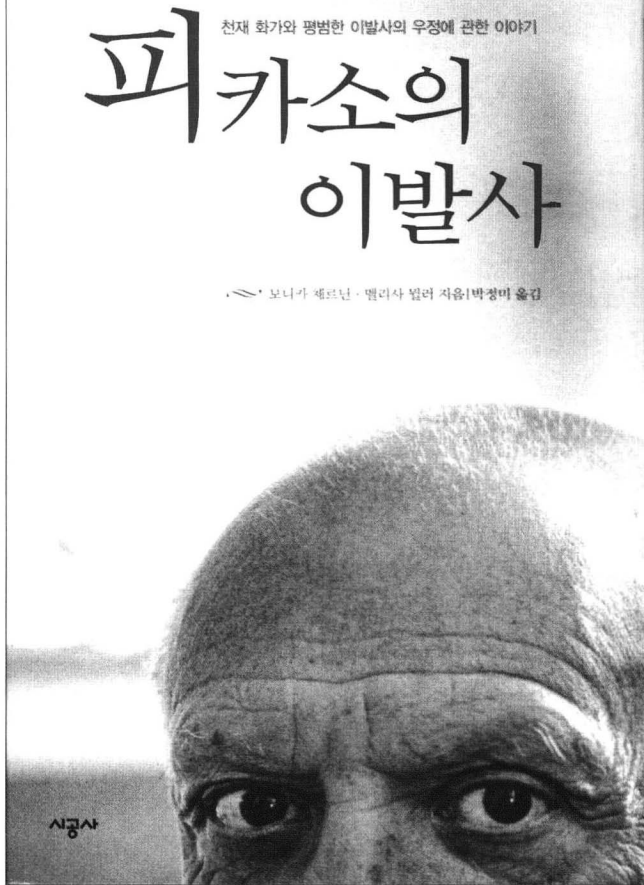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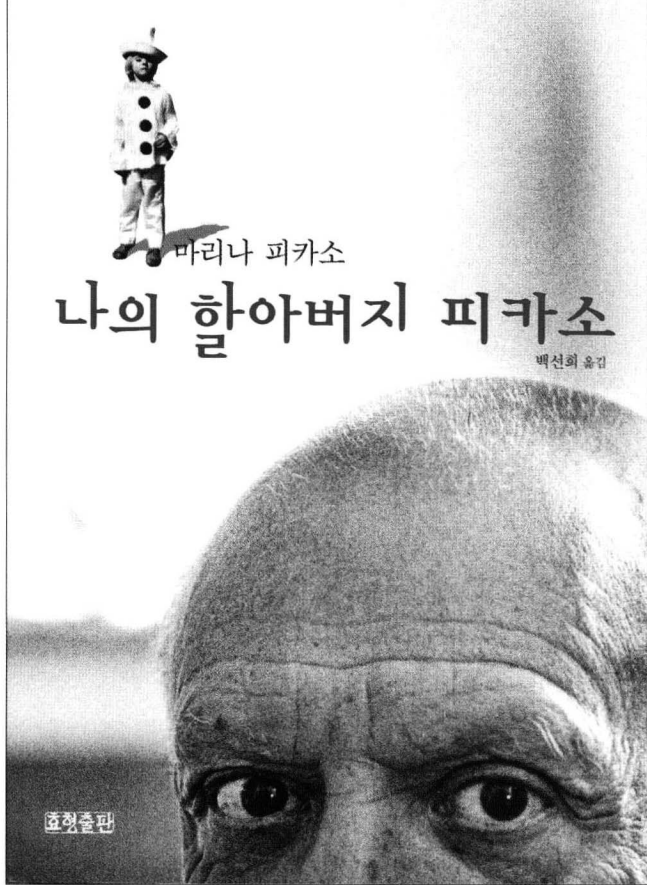
《발견자 피카소》

김원일 지음 | 동방미디어 | 334쪽 | 값 22,000원

현대 미술의 정점에서 있는 화가 피카소. '천재' 라는 타이틀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는 피카소에 관한 책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 《피카소의 이발사》, 《발견자 피카소》, 가 그것.

출간 당시 프랑스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는 유명 예술가인 피카소의 손녀 마리나 피카소가 그려낸 할아버지의 냉혹한 초상화다. 무능력한 아버지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마리나. 그에게 유명 화가이면서 억만장자였던 할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던 '냉혹한 타인'에 불과했다. 오히려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가족들을 쏘아보며 대저택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던 할아버지로 인식될 뿐이다. 마리나는 '천재 화가' 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하고 냉혹한 할아버지'의 존재를 담담한 어조로 폭로한다. 피카소에게 빌붙어 사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찍혔던 아버지, 피카소의 '가학 대상'이 되었던 오빠, 피카소라는 이름으로 인해 14년간 '정신질환을 겪었던' 마리나. 저자는 독특한 천재 화가 주변에서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보낸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그리고 묻는다. "가까운 이들을 절망에 빠뜨릴 권리가 위대한 예술가에게는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의 끝에서 '비범한 내면 세계에 침잠했던 피카소'를 발견한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용서'와는 별개의 것이다. 1990년부터 고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마리나 피카소. "사랑은 받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의 오류를 증명하는 듯한 저자의 현재 활동을 보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재밌거리다.

독일에서 발간된 《피카소의 이발사》는 피카소의 이발사가 털어놓는 '피카소 이야기'다. 파블로 피카소는 지배욕이 강하고 타산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발사였던 에우헤니오 아리아스는 그를 '진솔한 우정을 나눈 친구'로 회고한다. 이 책은 천재 화가와 평범한 이발사 사이에 지속된 각별한 우정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발사 곁에서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간 피카소'를 우리 앞에 소개한다. 이발사가 증언하는 피카소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지원한 휴머니스트, 조국 스페인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애국자, 사랑하는 연인의 배신에 상처받는 낭만주의자다.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가 냉정하게 피카소를 폭로하고 있다면 《피카소의 이발사》는 위트 넘치는 솔직함으로 친절하게 피카소를 증언한다. "대머리 피카소의 머리를 자르는데 왜 기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얼마 남지 않은 머리를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아리아스의 유머는 그 단적인 예. 그밖에 피카소의 사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 없다는 이발사를 1년 동안 설득했다던 저자들의 이야기도 이 책의 흥미요소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책은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리부리한 매서운 눈매가 인상적인 피카소의 얼굴 사진을 똑같이 표지로 하고 있다.

두 책이 양극단에 서서 피카소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면 《발견자 피카소》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피카소에 접근한다. 앞의 두 책과는 달리 저자인 김원일은 피카소를 증언하지 않는다. 그는 피카소와 한번도 대면해 본 적 없는 평범한 미술 애호가로서 겸손하게 피카소의 자취들을 되짚는다. 책은 피카소의 전 생애를 다루지 않는다. 저자는 피카소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데 1900년대부터 1916년까지의 시대만을 다룬다. 청색시대, 분홍색시대, 입체주의의 태동 등 피카소의 시기별 화풍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의 삶에 다가간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 저자는 “다섯달 만에 원고 지 1천백 장을 쓰기는 ‘글쟁이’ 40년 만에 처음이었다”면서 피카소처럼 정열적으로 책을 쓰는 작업에 몰두했음을 밝혔다. 그 열정을 반영하듯 책은 불거리, 읽을거리 모두를 겸비하고 있다. 70점에 달하는 그림과 함께 드러나는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들. 저자는 여기에 그림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면서 이야기의 중간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불쑥불쑥 집어넣는다. 우리 소설가의 맛깔스런 문장을 통해 전개되는 피카소의 극적인 삶. 이 책은 한 편의 극적인 소설이면서, 미술 에세이면서, 상세한 해설을 담은 화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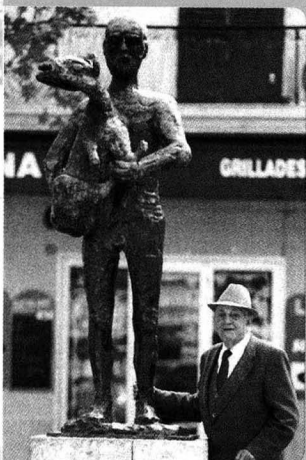
“또 피카소야?”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피카소에 관한 책은 많이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근래 발간된 세 권의 책들은 그의 ‘후천적 천재성’과 ‘비범한 삶’에 주목한다는 데 차별성을 갖는다. 주변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바라본 피카소의 삶, 우리 소설가의 담백한 문체를 통해 표현된 그의 삶과 예술. 천재 화가의 삶은 일관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누군가는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그를 아름답다 표현하고,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원망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발견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재능을 칭찬한다. 그렇지만 이 말들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보다 먼저 이처럼 불일치된 의견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임을 인정해 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의 그림만큼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피카소를 바라보는 사람들. 세 권의 책은 화가 피카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지킬박사인가? 하이드인가? 피카소의 세__얼굴 바라보기



할머니의 초상화 <울가의 초상>, 1932년 작
앞에 선 마리나 피카소.



피카소의 조각상 <양과 남자>앞에 선
91세의 에우헤니오 아리아스.



문학 형식을 빌어 피카소의 삶과 예술에
다가간 소설가 김원일.

마리나 피카소가 말하기를 :

“피카소는 냉혹하고 무서운 인물이다. 그는 냉정하게도 대저택의 문전에서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거절했다. 자신의 손자들을 문전에서 거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찬미할 수 있단 말인가.”

“피카소는 가족들에게 지극히 무관심했다. 그는 아들을 비롯하여 손자, 손녀에게 단 일 초의 배려도, 눈곱만큼의 존중도, 손톱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애초부터 피카소의 가족인 우리는 독을 먹으며 자랐다. 우리의 젖병에는 우유가 아닌 독이 들어있었으며, 그 양은 날마다 늘어만 갔다. 그 막강한 권력의 독 앞에서 우리는 짓밟힌 삶을 살았다.”

“그 지독한 피카소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다.”

에우헤니오 아리아스가 말하기를 :

“피카소는 조국 스페인을 너무도 사랑한 애국자였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미소지으며 쾌활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의외라는 듯 당황해 했다.”

“피카소는 사랑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다. 물론 자기 여인들에게 한결같이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 피카소는 그들을 틀림없이 사랑했다.”

“피카소는 나와 깊은 우애를 나눴다. 결혼식의 들러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조심스런 나의 부탁을 그는 당연하다는 듯 응해주었다.”

“피카소는 외로움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했고 평생 그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불쌍한 인물이었다.”

소설가 김원일이 말하기를 :

“피카소는 타고난 천재요, 노력을 통해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감으로써 화력 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천재로서의 소양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끊임없는 성찰, 타고난 건강과 자동기계처럼 쉴 줄 몰랐던 성실성,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인간적이었던 진정한 자유인, 들불처럼 타올랐던 무한대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움을 ‘발견’해 나간 도저한 창의력…… 이러한 천재적 기질 외에도 내 위에 누구도 세울 수 없다는 절투심과 이기주의, 전통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반역, 남성성의 한 전범으로서의 여성 편력 등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그는 모두 자신의 예술 발전의 촉매로 이용했다.” **김원일**

김청연 기자